

6. 15 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통일을 앞당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을 모시고

조선인민군종합체육관 개관식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을 모시고 조선인민군종합체육관 개관식이 진행되었다.

연건축면적이 근 1만㎡에 달하는 종합체육관은 룡구, 배구, 실내축구를 비롯한 각종 경기를 진행할수 있는 체육시설들과 문화휴식시설들, 관람에 필요한 온갖 조건이 그쯘히 갖추어져있는 현대적인 체육관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개관식장에 나오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울리는 참가자들은 정력적인 선군령도로 민족번영의 대전성기를 펼쳐주시고 군대와 인민을 백승의 한길로 현명하게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전체 군대와 인민의 열화같은 흠모의 정

을 담아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개관식에는 김정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조선로동당과 무력기관의 책임일군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 체육상, 인민군장병들, 군대안의 체육인들이 참가하였다.

개관식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인민무력부장인 김영춘 조선인민군 차수가 개관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언제나 인민군대체육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현대적인 체육설비들과 기재들을 보내주시고 체육선수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어 크나큰 은정을 베풀

어주시게 대해 말하였다.

계속하여 연설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유능한 설계가들과 강력한 건설력량을 파견해주시고 필요한 자재들도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주시으로써 종합체육관을 반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훌륭히 일떠세우는 기적이 창조될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연설자는 인민군대안의 전체 체육인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종합체육관에 모시고 개관식을 진행한 오늘의 영광을 한생토록 잊지 말고 나라의 체육발전의 기둥, 핵심으로 내세워주시는 장군님의 의도대로 우리 나라를 명성높은 축구강국, 체육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선군

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금메달로 빛내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연설자는 어버이사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을 향해 온 나라가 폭풍쳐 내달리는 시대의 벽찬 승결에 발맞추어 훈련장과 경기장마다에서 사상전, 투지전, 속도전, 기술전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모든 체육종목들을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릴데 대한 당의 의도를 결사관철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웅장화려하게 건설된 종합체육관의 외부와 내부를 보시고 군인건설자들이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구호를 높이 받들고 대중적 영웅주의와 창의창발성을 발휘하여 짧은 기간에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는 또 하나

의 위대한 창조물을 훌륭히 일떠세우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자랑찬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개관식이 끝난 다음 동행한 책임일군들과 함께 조선인민군 체육단들이 진행하는 개관경기를 관람하시었다.

김정일장군님께서 체육을 발전시키는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하여 나라의 위력을 강화할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관계를 강화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나라의 체육을 급속히 발전시키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었다.

본사기자



희천발전소 통림연제콩크리트치기가 700여일만에 끝났다

강성대국건설의 최전선인 희천발전소건설장에서 대고조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 승리의 포성이 울려 퍼졌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웅대한 구상따라 희천발전소건설에 펼쳐나선 조선인민군 군인건설자들이 선군혁명의 주력군단계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질풍같이 내달려 제

일 어렵고 방대한 통림연제의 콩크리트치기를 700여일 동안에 끝내는 자랑찬 위훈을 세웠다.

백철불굴의 정신력과 혁명적전격력, 대중적영웅주의에 의해 10년이상 걸려야 할 대규모의 건설이 불과 2년만에 기본적으로 끝남으로써 장자강상류의 심심산중에 만년대계의 인제가 솟아올라 웅장한 자태를 드러냈다.

새로운 천리마속도, 최첨속도를 조국청사에 아로새기며 승리의 개가를 울린 군인건설자들의 불멸의 위훈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신 명령을 단 한치의 드림도 없이 결사관철하는것을 신념화, 체질화한 우리 군대만이 펼칠수 있는 위력이며 강성대국으로 치달아오르는 조선

의 기상이다.

인민군대에 제일 어려운 통림연제건설을 통채로 맡겨주시고 주체98(2009)년 3월 25일 산세협한 건설장을 찾오시어 우리 식의 연제건설공법도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믿음은 기적창조의 무한대원 동력으로 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주체98(2009)년 9월 건설장을 찾오시어 분과 초가 그대로 비약과 혁신으로 호르며 세인을 경탄시키는 기적이 끊임없이 창조되고있는

에 대한 절대불변의 총실성을 지닌 혁명적군인정신의 창조자들이 강성대국건설의 맨 앞장에서 달려오기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구상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철리를 힘있게 파시하였다.

조선로동당의 뜻을 충직하게 받드는 인민군대의 영웅투쟁과 비상한 애국열의에 의하여 위대한 수령 김정일장군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까지 희천발전소건설을 끝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렸다.

본사기자

룡성기계연합기업소에서 개발한 첨단지열설비 생산 시작

는 룡성기계연합기업소를 여러차례 찾오시어 최첨단들과의 방향과 방향을 밝혀주시고 주체적인 압축기제작의 새 력사도 펼쳐주시었다.

지난 1월 기업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흥남가스화대상설비생산을 끝낸 룡성로동계급의 불굴의 창조력을 치하하시고 새 에너지를 한 형태인 지열자원을 적극 개발이용하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첨단기술인 지열설비들을 우리 식으로 만들데 대한 과업과 방향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은 뜻과 크나큰 믿음을 심장깊이 새긴 룡성의 로동계급은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높은

세계를 보는 혁신적안목으로 최선식지열설비들을 제작하기 위한 돌격전을 벌리었다. 최선설비와 기술로 장비된 선군압축기제작이 일떠서고 그 어떤 기계도 제작할수 있는 현대적인 물질기술적대대가 축성된것은 첨단지열설비들을 마음먹은대로 만들어낼수 있게 한 든든한 밑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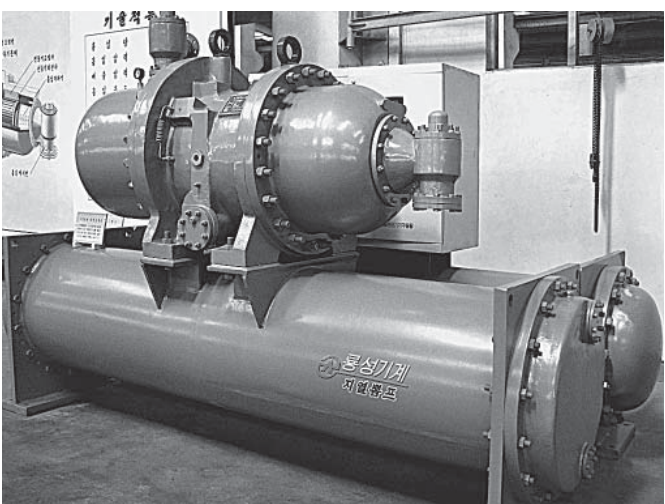
룡성기계연합기업소에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새로 개발한 첨단지열수기술은 나라의 지열에너지리용에서 획기적인 전환으로 된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룡성로동계급의 자력갱생의 정신력에 의

한 절대불변의 총실성을 지닌 혁명적군인정신의 창조자들이 강성대국건설의 맨 앞장에서 달려오기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구상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철리를 힘있게 파시하였다.

조선로동당의 뜻을 충직하게 받드는 인민군대의 영웅투쟁과 비상한 애국열의에 의하여 위대한 수령 김정일장군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까지 희천발전소건설을 끝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렸다.

본사기자



진보적인류가 성대히 기념하게 될 2012년 태양절

외국인들의 반향

위대한 수령 김정일장군님의 탄생 100돐을 기념 국제준비위원회 책임일군회의에 참가하였던 외국순님들은 2012년 태양절을 인류사적대경사로 맞이하는데 적극 이바지할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브라힘 만두 나이제리아 전 국회 상원 부의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2012년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해이다.

다음해 태양절을 뜻깊게 기념하려는것은 진보적인류의 한결같은 지향으로 되고 있다.

다채로운 기념행사들을 통하여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만민의 끝없는 흠모의 정이 뜨겁게 분출될것이다.

또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탄생 100돐을 성대히 기념하

기 위한 준비사업에 온갖 지성을 바치고있다.

자메다 안싸리 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 카라치지부 서기장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표시하면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력사에는 수많은 명인들이 기록되어있다.

하지만 어느 위인의 생일도 세계적범위에서 기념한적은 없었다.

위대한 수령 김정일장군님의 탄생 100돐을 성대히 기념하기 위한 준비위원회들이 국제적으로 수많은 조직되었다. 이것은 경애하는 주석에 대한 열렬한 흠모심의 발현으로 된다.

알레한드로 까오 데 베노스 에스빠냐에 본부를 둔 조선과의 친선협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본사기자

나라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실현하려는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넘은이다.

북남사이에 조성된 현실과 우리 민족의 절박한 요구에 비추어볼 때 조국통일을 평화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최선의 방도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럽방제방식의 민족통일국가를 창립하는것이다.

북과 남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서로 싸우지 않고 화합하여 나라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길은 오직 럽방제방식의 통일을 실현하는데 있다.

럽방제통일방안은 북과 남이 서로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공명정대한 통일방도이다.

북과 남에는 오래동안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있고 어느 일방도 자기의것을 양보하려 하지 않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북과 남이 제각기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절대시하거나 그것을 상대방에 강요하려 한다면 대결과 충돌을 초래하게 된다.

사상과 제도에 민족이 있다. 지금 북과 남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는 결코 통일의 장애로 되지 않으며 그로 하여 서로 불신하고 대결해야 할 리유가 없다.

반만년의 유구한 세월 한피줄을 이어온 우리 겨레가 민족적공동성을 기초로 한다면 얼마든지 럽방제방식에 기초한 민족통일을 실현할수 있다.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자면 나라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지금 북과 남사이에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방대한 무력이 첨예하게 대치되어있으며 조선반도에는 항시적인 전쟁위험이 감돌고있다. 이런 조

건에서 럽방제통일이 아닌 제도통일을 추구하는것은 이 땅에 또다시 전쟁을 몰아오는 위험한 행위이다.

북과 남이 서로 적대시하여 대결한다면 분렬의 지속과 전쟁밖에 초래할것이 없다. 그러므로 싸우지 않고 평화적으로 통일해야 하며 그 최선의 방도는 럽방제방식으로 통일하는것이다.

럽방제통일에 배치되는 《제도통일》론은 비현실적인것이며 용납할수 없는 대결전쟁론이다.

남조선보수당국은 지금도 그 무슨 《3대공동체추진구상》이니,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이니 뉘니 하며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야망을 공공연히 드러내놓고있다.

《제도통일》은 그 실현방도가 어떠한 상대방을 헤치는데를 전제로 하는것만큼 북과 남의 누구에게도 접수될수 없다.

럽방제를 실시하면 민족내부에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있어도 하나의 민족으로서 화해와 단합을 실현할수 있으며 대립과 의견충돌을 극복하면서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서로 협력해나갈수 있다.

럽방제통일을 대하는 태도와 립장은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가 아니면 전쟁과 분렬의 지속을 바라는가를 제는 척도로 되고있다.

남조선당국은 도저히 실현될수 없는 《제도통일》의 헛된 망상에서 깨어나야 하며 역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이 가리키는 럽방제방식의 통일을 지향하여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민족의 대단합을 도모하며 럽방제방식으로 나라의 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한 애국투쟁에 적극 펼쳐나서야 할것이다.

리현아

승리의 노래 울리는 평양

나는 평양에서 성대하게 진행된 제 27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였다.

2012년을 향해 앞둔 뜻깊은 해의 축전무대는 우리 겨레와 인류의 위인칭송의 마음으로 환희로웠고 평양의 거리거리는 위인홍모열기로 끓어넘쳤다.

나는 한생을 음악가로 살아오지만 노래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사회와 시대발전을 추동하는 힘있는 수단으로 되고있는 공화국의 현실에서 깊은 감동을 받곤 한다.

하기에 나는 오늘 세계를 놀래우는 경이적인 사변들의 역사를 오성지에 새기여가는 공화국의 현실을 목격하면서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의 탁월한 음악정치에 대해 다시금 음미해보려고 한다.

1

나는 1998년 12월 6일 미국에서 처음으로 《김정일장군의 노래》를 연주하는 송가음악회를 열었다.

그후 매해 뜻깊은 2월의 명절을 맞으며 경축음악회를 가지었다.

돌이켜보면 나는 세계 10대교향악단의 하나로 오랜 역사를 가진 로씨야 국립교향악단의 지휘단상에도 서보았고 별가리아방송교향악단도 지휘해보았다.

그러나 미국에서 공연한 송가음악회처럼 내자신이 격동되고 관객을 흥분에 휩싸이게 한 공연은 체험해보지 못하였다.

미국에서 진행한 음악회들에서 울려나오는 노래들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을 높이 모신 우리 민족제일찬가였고 미국의 진영을 감동과 걱정으로 휩싸이게 한 노래들은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강성대국으로 나아가는 조국인민들의 장쾌한 심장의 선물이었다.

나는 2006년 4월 중국 심양에서 뜻깊은 《통일음악회》를 열었고 올해 2월에도 뉴욕에서 《2월의 봄》이라는 주제로 조국의 통일을 염원하는 음악회를 진행하였다.

이 음악회들에서는 강성대국건설과 겨레의 통일대진군을 승리로 이끄시는 철세의 위인을 찬양하여 노래 《조선의 장군》과 《축원》을 연주하여 관객들을 다시금 크게 감동시켰다.

한생을 음악과 더불어 살아온 내가 찾은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철세의

위인을 모실 때만이 민족의 존엄과 긍지가 민방에 빛날수 있다는것이다.

김정일국방위원장님께서는 독창적인 음악정치로 조국인민들을 불러일으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이겨내시고 강성대국건설을 승리로 이끌어나가신다.

혁명적인 노래는 투쟁의 대오에 높이 울리는 진군가이며 시대의 행진곡으로 된다. 조국동포들은 말하고 있다.

지금도 나는 평양에서 진행되는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처음으로 참가하였던 1996년을 잊을수 없다. 그때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던 매우 어려운 시기였다.

그러나 조국인민들은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을 하늘처럼 믿고 따르면서 고난속에서도 창조와 건설의 노래를 부르고 시련속에서도 투쟁과 혁신의 노래를 부르며 변혁의 새 역사를 창조해가고있었다.

말그대로 조국수호전, 사회주의수호전은 혁명의 노래와 함께 벌어진 사상의 대결, 의지의 대결전이었다.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허물어버리려고 달려드는 침략세력의 침에 대한 대결전에서 혁명의 노래는 조국인민들의 신념과 의지를 더욱 굳세게 해주었고 제국주의세력을 공포에 떨게 하였다.

김일성주석님이 세워주신 자주의 나라, 인민의 세상을 지키기 위해 김정일국방위원장님께서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 되리라》는 노래를 마음속으로 부르시며 멀고 험한 선군장정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시었다.

공훈국가합창단을 진군의 나팔수로 내세워주시고 가시는 곳마다에서 방사포의 일제사격과 같은 우렁찬 합창을 울리도록 하시었다.

그렇게 정세가 준엄한 날에도 김정일국방위원장님께서는 5년동안에 수십번이나 공훈국가합창단공연을 보아주시고 지도하시었다고 하니 음악의 위력으로 고난의 행군을 이겨내고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기울이신 그이의 로고를 짐작할수 있다.

공훈국가합창단이 부른 노래 《높이 들자 붉은기》는 그 무슨 《변화》와 《봉괴》를 떠들던 제국주의자들을 향해 《나에게서 그 어떤 변형을 빼내지 말라》고 선언하신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이 한마음한뜻으로 사회주의조국을 끝까지 지키고 강성대국을 일떠세우려는 조국인민들의 신념과 의지의 웨침이었다.

온갖 시련의 장막을 걷어내고 역사의 잡을을 짓누르며 우렁차게 울린 이 노래들은 조국인민들이 고난의 행군과 같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도 딛고 일어서게 하였고 승리의 신심드높이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총진군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서게 하였다.

동서고금의 역사를 보면 명확한 군사전법과 첨단무기로 적을 무찌른 군사령관들에 대한 이야기는 있어도 밀려드는 전쟁위험을 노래로 처목리친 탁월한 선군령장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줄로 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력이 1998년 《지하핵시설의 폭》을 떠들며 집요하게 《사찰》을 강요해나섰을 때 태연자약하게 인민군부대의 예술선전대공연을 관람하시는 김정일국방위원장님에 대해서방언론들은 《김정일최고사령관의 지략과 담력은 참으로 놀랍다. 그이는 클린턴이 화약으로도 얻지 못한 승리를 예술공연관람으로 쟁취하였다.》고 평하였다.

최악의 역경을 순경으로, 고난의 행군을 락원의 행군으로 바꾸어놓으며 노래와 함께 강성대국건설사를 펼쳐나가는 공화국에서는 지금 가는 곳마다에서 승리의 노래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지고있다.

올해 1월 1일부 《로동신문》 1면에 실린 노래 《승리의 길》이 그것을 실증해주고있다.

공화국에서는 해마다 새해 첫날 신문들의 1면에 한해의 정책방향을 밝히는 공동사설을 실고있다. 그런데 올해에는 이러한 관례를 깨고 노래 《승리의 길》이 악보와 함께 웅근 한면에 큼직하게 실리었던것이다.

... 우리는 자기를 믿듯 승리를 굳게 믿고 산다
고난의 천리를 가면 행복의 만리가 온다
수령님 따라서 시작한 이 혁명 기어이 장군님 따라 승리떨치리 ...

2012년을 향해 앞두고 신문지면에 실린 노래 《승리의 길》은 고난의 천리를 걸은 조국인민들의 눈앞에 이제 곧 행복의 만리가 펼쳐지게 된다는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의 신심과 락관의 선언이었다. 노래는 또한 강성대국건설의 승리는 멀지 않았다는 뜻깊은 의미를 담고있는 시대의 진군가였다.

그래서 노래 《승리의 길》은 온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것이다.

남조선의 인터넷과 신문, 잡지들, 아메리카지역 동포신문들도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이 신문 1면에 김일성주석의 넘원을 기어이 꽃피우겠다는 의지를 담은 《승리의 길》이라는 노래를 실었다.》, 《북이 관례를 깨고 노래 《승리의 길》을 올해 《로동신문》 신년호의 1면에 실은 의도를 다 알수 없지만 분명한것은 북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리고 사상적으로 《승리의 길》을 가고 있다는것이다.》라고 전했다.

공화국에서 울리는 노래는 창조와 건설, 위훈과 승리의 힘찬 메아리이기도 하다. 천만대적도 이기는 백승의 담력이 여기에 있고 고난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기어이 승리를 떨치는 불굴의 정신력도 여기에 있다.

김정일국방위원장님께서 몸소 CNC라는 종자를 주시여 창작하도록 해주신 《돌파하라 최첨단을》이라는 노래가 최근에 시대의 명곡으로 불리우며 최첨단돌파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최첨단과학기술과 종합적경제력의 산물인 인공지구위성을 100% 자체 힘과 기술로 만들어 두번이나 단번발사로 성공시킨 공화국에서는 이 노래와 함께 주체철과 주체비날론, 주체비료가 폭포처럼 쏟아져나오고 드넓은 간척지와 파수밭이 펼쳐지는것과 같은 사변들이 련속 일어나 세계를 놀라게 하고있다.

승리의 노래높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면서 최첨단을 돌파하며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공화국에서 경제강국의 목표를 달성하는것은 이제 시간문제라고 본다.

2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은 독창적인 음악정치로 역사와 시대발전을 힘있게 추동하시는 현시대의 탁월한 정치가, 령도의 거장이다.

인간생활의 회로예락을 가락에 담아 표현하는 음악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놓고보아도 원시시대에 《거부기노래》와 같은 로동가요들이 불려왔고 고대에 이르러 《공후인》과 같은 개인창작의 서정가

요들이 창조되었다.

이러한 음악은 당대 사회의 실상과 인민들의 지향을 일정하게 반영하였고 사회적발전에도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김정일국방위원장님처럼 일찍이 나의 첫사랑은 음악이라고 하시며 인류사상 처음으로 음악이 가지는 특별한 감화력을 헤아려보시고 그것을 인민대중의 리상실현을 위한 참다운 정치에 구현하신 그런 위인은 세계사의 그 어느 페이지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김정일국방위원장님께서는 음악을 중시하고 음악을 정치의 위력한 수단으로 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밀고나가는데 음악정치가 음악으로 사람들의 정서생활을 풍만하게 하고 사람들의 심장을 움직여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켜나가는데 음악정치의 특성이 있다고 지적하시었다.

정치가 없는 음악은 향기가 없는 꽃과 같고 음악이 없는 정치는 심장이 없는 정치와 같다라는 그이의 말씀은 음악과 정치의 련관을 가장 정확히 밝혀주는 독창적인 발견이다.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의 음악정치가 구현되고있는 공화국은 말그대로 노래의 나라이며 노래와 함께 밝은 앞날을 열어가고있다.

미국에서 교향악단연주를 지휘해오면서 나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돌아보았고 뜻깊은 연주회도 가졌었다.

그러나 공화국에서처럼 온 나라의 남녀로소가 노래를 부르고 어디 가나 노래소리가 울려 퍼져서 량만과 회월에 넘쳐있는 나라는 보지 못하였다.

가치과 일리마다에서 노래가 일상적으로 울려 퍼지는것은 두말할것 없이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전국근로자들의 노래경연, 군인가족예술소경연들과 공장, 기업소들과 인민군부대에서 활발히 진행되는 예술소조활동들을 비롯하여 온 나라가 노래로 흥성이고있다.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의 음악정치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도 힘있게 추동하고있다.

김정일국방위원장님께서 역사적인 평양상봉으로 활짝 열어주신 6.15통일시대에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서로 일사단결 한 목소리로 《우리는 하나》, 《조선은 하나다》, 《통일렬차 달린다》의 노래를 부르며 통일대진군을 벌여왔다.

공화국의 해당 일꾼들이 들려준데 의하면 노래 《우리는 하나》는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의 세심한 지도밑에 창작완성된 노래라고 한다.

이 노래가 처음 나왔을 때 김정일국방위원장님께서 우리 겨레가 사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하나》의 노래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시여 조국통일의 열망이 삼천리강토에 차넘치게 하시었다.

우리는 이번에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서 노래 《조선은 하나다》를 관현악으로 연주하였는데 장중한 노래 선율이 끝나자 극강안은 격정과 흥분의 박수갈채로 떠나갈때 하였다.

나는 관중의 그 뜨거운 박수갈채에서 공화국에 차넘치는 통일열기를 배우고 느꼈다.

내외분렬주의세력의 반통일대결책동으로 하여 북남관계가 지금 얼음한 시련을 겪고있지만 노래의 선율이 말해주듯 우리 조선민족은 갈라져 살수 없는 하나이고 통일만세의 노래가 높이 울릴 력사의 그 아침은 반드시 밝아오고야말것이다.

오늘 공화국에서는 어디 가나 노래 《발걸음》을 들을수 있다. 이 노래의 경쾌하고 박력있는 선율은 거리와 마을, 기업소와 학교에서도 울리고 경축행사장들에서도 울리고있다.

이번 제27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개막공연에서도 공화국의 국립교향악단이 노래 《발걸음》을 연주하여 참가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었다.

씩씩하고 힘있는 《발걸음》에 조국동포들은 자기들의 심장의 박동을 맞추고 진군의 발걸음을 맞추며 기세충천하여 강성대국승리의 그날을 마중가고있다.

노래로 천만대중의 심장을 울리며 강성대국의 래일을 앞당겨오시는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의 령도에 의해 날마다 변모되는 공화국의 자랑찬 현실을 보며 우리 해외동포들은 선군조선의 밝은 미래를 확신하고있다.

한생을 음악가로 살아온 내가 통일조국을 위해 이바지할수 있는것이 있다면 세계만방에 태양찬가, 통일음악을 더 높이 울리는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몸은 비록 해외에 있지만 조선민족의 한 성원으로서는 앞으로도 철세의 위인이 계시는 평양, 승리의 노래 높이 울리는 평양을 언제나 마음에 안고 통일강성대국의 그날을 앞당기는 노래들을 더 높이 울려가겠다.

(필자는 재미동포전국련합회 회원, 우류교향악단 단장임)

순정미 전하길 민족단합의 이야기

유서깊은 평양의 대동강에는 오늘도 사람들이 자주 찾아가는 썩성이 있다.

원래 하나의 작은 섬이었던 썩성은 오랜 세월 대동강의 퇴적운반물에 의해 서쪽의 두루섬과 이어져있다. 생김새도 비교적 좁고 길쭉하다.

정치풍은 이 섬이 오늘도 북과 남, 해외 우리 겨레의 마음과 마음이 달려오는 유명한 섬으로 된것은 60여년전 이곳에서 통일애국을 위한 뜻깊은 협의회가 진행되면서부터이다.

그날은 1948년 5월 2일이였다. 력사적인 4월남북련석회의를 마련하시어 민족분열의 어둠이 질어던 조국강산에 통일독립의 새 환희를 안아오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회의에 참가했던 남조선대표들의 피로도 풀어주시고 그들과 이야기도 나누시기 위해 이곳 썩성에서 협의회를 마련해주셨던것이다.

버드나무아래에 퍼놓은 수수한 돗자리우에서 진행된 협의회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련석회의의과정에 이룩된 성과들을 개괄하시어 그를 공고화하기 위한 당면과업들에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천리해안의 예지와 비범한 통찰력으로 조국에 조성된 북압한 정국을 환히 꿰뚫어보시고 나아갈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는 수령님을 우리러 조선인들, 김규식, 최동오, 조소양을 비롯한 남녘의 이름있는 각계 인사들은 끝없는 정란에 휩싸여있었다. 그러지 않아도 수령님의 가르침을 한번 더 받았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품고있던 그들은 궁금했던 문제들과 함께 자기들이 북에 와서 느낀 소감, 의견들을 스스로 털어놓았다.

어머이수령님께서는 그들의 발언을 주의깊게 들으시고 모든 문제들에 명쾌한 해명을 주시며 조성된 정세에 맞게 신축성있는 활동들을 벌릴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었다.

송고한 민족애와 넓은 도량이 흘러넘치는 어머이수령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안으며 남조선의 각계 인사들은 지극히 명철한 가르침이시고 참으로 묘안이라고 하면서 불신과 편견, 오행로 응어리졌던 마음을 들을 터치고 련공합작, 련북통일의 길을 길을 의지를 굳게 가다듬었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남조선대표들과 함께 강가에 나가서도 고기잡이도 하시고 수영도 하시며 한없이 소탈한 모습으로 그들이 마음놓고 휴식의 한때를 즐기게 하시었다.

지금도 썩성혁명사적지를 돌아볼 때면 뜻을 력사의 그날 남측대표들과 허물없이 마주앉으시여 통일애국의 방략을 가르쳐주시던 수령님의 자애롭고 소탈하신 모습이 어러오고 점심식사시간에 친히 숭배회와 어죽그릇들을 그들의 앞에 옮겨놓아주시며 애뜻한 정을 기울이시던 이야기가 생가나 경건한 마음에 사로잡히곤 한다.

력사의 그날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통일전선탑이 빛나는 썩성에 어린 민족대단합의 위대한 정신은 겨레

의 마음속에 살아 빛을 뿌리고있다.

외세에 의해 나라가 두 동강난지도 어언 60여년. 한포풀이면서도 서로 총부리를 맞대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 민족, 날로 더욱 험악해지는 북남관계의 비극적인 현실.

내외반통일대결세력의 책동으로 빛어진 오늘의 험악한 사태는 63년전의 력사적인 그날을 다시금 되새기게 하고있다.

썩성협의회가 오늘도 우리에게 새겨주는것은 진정으로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사상과 정견, 소속과 사는 곳의 차이를 초월하여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뜻과 마음을 합치고 하나로 단합하여야 한다는것이다.

년초에 공화국이 정부, 정당, 단체 련합회의를 소집하고 폭넓은 대화와 협상을 위한 중재안을 발표한것도 바로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파국에 처한 북남관계를 구원하며 평화와 통일번영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넓은 아량과 송고한 통일애국의지의 발현이다.

우리 겨레는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인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아래 하나로 굳게 뭉쳐 민족의 대단결로 하루빨리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

이것이 력사적인 썩성협의회가 오늘날의 시대에 살고있는 우리 겨레모두에게 다시한번 새겨주는것이며 통일의 그날까지 끊기지 않을 영원한 애국의 메아리이다.



..... ○ **길이 전하라, 통일전선탑이여!** ○

풍치수려한 대동강변의 썩성에 높이 솟아 민족의 어머이의 위대한 업적을 전하는 불멸의 기념비 통일전선탑!

바라보면 볼수록 한평생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의 송고한 애국애족의 뜻과 불멸의 업적이 가슴 뜨겁게 안겨온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정견과 신앙의 차이에 관계없이, 과거를 불문하고 넓은 도량과 아량있는 포용력으로 통일애국의 한길로 손잡아 이끌어주신 어머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우리 민족의 대단결위업은 내외반통일세력의 악랄한 도전과 방해책동을 짓부시며 줄기차게 전진해올수 있었다.

력사의 증견자인 통일전선탑은 민족대단결의 업적에 쌓아올린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천만년 길이 길이 전해갈것이다.

본사기자

김경식



우리 민족의 차문화 (1)

차는 누구나 즐겨마시는 음료이다. 하기에 오늘날 차는 커피, 코코아차와 함께 인간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세계3대 기호음료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차가 인간생활의 필수품으로 되기까지는 오랜 역사적 세월이 흘렀다. 그 과정에 생겨난 일화들도 많고 웃지 못할 희비극도 적지 않다. 차 끓이는 도구인 싸모와 르가 로씨야를 상징하는 생활용품으로 되고있는 사실 하나만 놓고보아도 차가 인간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잘 알 수 있다. 력사에 유명한 《아전전쟁》(1840-1842)도 사실상 차와 비단때문에 벌어진 전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에서 《독립전쟁》(1776년)이 일어나게 된 데는 차도 한몫 하였다. 우리 나라 력사에서 《임진왜란》이라고 불리우는 임진조국전쟁(1592-1598)을 가리켜 일본에서는 일명 《랍치전쟁》, 《도자기전쟁》이라고 부르고있는 것도 다름아닌 차그릇문제 때문이었다. 이렇듯 인류력사, 인류문화사에서 뉘 수 없이 중요한 음료로 존재하여온 차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도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창조해온 우리 선조들은 오래전부터 차나무를 재배하고 가공하며 마시면서 조선민족고유의

차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켜왔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차의 약리효과와 함께 일상생활에서 머리가 복잡해지거나 어지러울 때 한잔의 차를 놓고 스스로 명상에 잠겨 머리를 식히며 진후사를 가다듬어 마음의 수양을 쌓아왔다. 이를테면 차를 정신적요구를 얻게 하는 인간생활의 필수품으로 간주해왔다. 우리 선조들은 차가 인간이 본래 지니고있는 깨끗한 마음, 어진 마음으로 돌아가게 해준다는 의미를 담아 《차도》라는 아홉가지 차의 덕을 일러왔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머리를 맑게 한다. 둘째, 귀를 맑게 한다. 셋째, 눈을 맑게 한다. 넷째, 입맛을 돕는다. 다섯째, 술을 깨게 한다. 여섯째, 피로를 풀게 한다. 일곱째, 목마름을 멎게 한다. 여덟째, 추위를 막게 한다. 아홉째, 더위를 물리친다. 이렇게 아홉가지가 되는 차의 덕을 후세에 전해줄 정도로 우리 선조들의 생활에서 차는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음료였다. 보통 차(茶)라고 할 때 차나무잎을 우려서 마시는 음료를 말한다. 다시말하여 차나무잎을 가공하여 만든 목차를 차라고 한다. 지금은 목차를 가공하여

만든 홍차와 그밖에 여러가지 나무잎이나 나무열매, 풀뿌리와 난알들, 과일들을 말리워 만들어 더운물에 우려거나 달여마시는 음료(포도차, 인삼차, 구기자차, 보리차, 감나무잎차 등)를 가리켜 다같이 차라고 부르고 있다. 동백나무과(차나무과)에 속하는 상록(常綠)식물인 차나무는 대체로 온대, 열대지방에서 자생하는 남방산식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차의 주요생산지로서는 중국, 일본, 대만, 인디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등이 있다. 온대지역에 속하는 중국과 일본에서는 주로 목차를 생산하며 아열대에 속하는 대만과 남중국 북경성 일대에서는 오롱차와 포종차를 생산한다. 인디아와 스리랑카에서는 주로 홍차를 생산한다. 차나무는 일반적으로 년평균기온이 12℃이상, 년강수량이 1400mm이상되는 지역, 비가 많이 오면서도 비물이 인차 빠지는 대지 또는 구릉지대에 잘 자라나고 한다. 차나무는 보통 자연상태에서 7-8m 자라며 차잎생산용 위하여 재배하는것은 보통 1-1.5m정도이다. 그러나 인디아의 앳쌈차나무처럼 높이가 10m에 달할 정도로 매우 큰것도 있다. 이것이 오늘날 세계적으로 알려진 차에 대한 일반적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장 교수, 박사 조희승

최근 콩나물이 암을 비롯한 여러가지 질병치료에 좋은 연구결과가 발표되어 인기를 모으고있다. **일미예방효과** 암환자의 경우 그 대부분이 비타민C가 결핍되어있다고 한다. 실험결과 건강한 사람은 충분한 량의 비타민C를 섭취하면 소변에서 검출되지만 암환자들에게서는 하나같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비타민C의 하루 섭취량은 건강한 사람인 경우 65mg이면 되지만 암을 예방하려면 150mg이어야 한다. 콩나물은 씹던 자라는 과정에 지방이 현저히 감소되는 대신 섬유소와 비타민류가 많이 증가하는데 특히 비타민A와 비타민C의 량이 대단하다고 한다. **뇌기능향상효과** 콩나물에는 사포닌, 비타민B, 비타민C, 안미노산 등 뇌세포에 산소와 영양물질을 공급해주는 성분들이 들어있어 뇌의 젊음을 유지해주고 뇌기능을 활발하게 해준다고 한다. **피부미용과 변비예방효과** 자료에 의하면 사람들의 성격은 식생활과도 관련되어있다고 한다. 일반적 으로 붉은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능동적이고 공격적인데 비해 녹색야채를 좋아하는 사람은 수동적이며 평화적인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것은 우연하게도 색채의 심리학적 작용과 일치한다. 붉은색의 의미(정열)와 녹색, 노란색의 의미(평화, 안정)가 그대로 식품의 색깔에 투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사기자**

콩나물에 들어있는 메티오닌, 사포닌 등 간기능을 높여주는 성분들은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이와 함께 비타민A, 비타민C와 카로리가 낮은 아미노산, 효소는 장에 오래 묵어있는 배설물을 풀어주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변비를 예방하고 장을 건강하게 해준다고 한다. **감기치료와 해정효과** 밝혀진데 의하면 콩나물에 들어있는 아스파라긴이 감기바이러스와 알콜의 독성을 효과적으로 제거한다고 한다. 또한 콩나물속에 함유된 비타민A, 비타민B, 비타민C, 메티오닌, 효소도 감기와 몸살치료, 해정에 유효한 성분이라고 한다. 이로써 우리 선조들이 예로부터 감기치료와 해정할 때 먹던 콩나물국의 과학적근거가 증명되었다. 이밖에도 고혈압, 동맥경화, 비만증, 심근경색, 저혈압 등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것으로 밝혀지고있다. **본사기자**

평양을 소개한 우표 발행

— 국가우표발행국에서 —

얼마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우표발행국에서는 평양을 소개한 여러종의 우표들을 새로 발행하였다. **30원우표: 평양지하철도 (영광역)** 평양지하철도는 평양시민들의 대중교통수단으로 광범히 이용되고있다. 우표는 훌륭히 꾸려진 평양지하철도 영광역의 내부를 반영하고있다. **42원우표: 만경대학생소년궁전** 평양시 만경대구역에 자리잡고있는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은 평양시안의 학생소년들을 위한 종합적인 과외교양기지이다. **56원우표: 5월1일경기장** 툄라도에 자리잡고있는 5월1일경기장은 규모가 방대하고 형식이 독특한 종합적이며 현대적인 체육기지이다. **70원우표: 인민문화궁전** 평양시 보통강기슭에 조선식건물로 건설된 현대적인 문화궁전이다. **84원우표: 개선문** 개선문은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적으로 조직명도하시어 조국을 해방하고 평양에 개신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불멸의 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려는 인민들의 절절한 념원을 담아 건립된 대기념비이다. **98원우표: 국립연극극장** 현대적으로 개건된 국립연극극장은 연극 《산울림》을 비롯하여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연극작품들이 많이 창작공연된 극장이다. **112원우표: 당창건시적관** 당창건시적관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해방직후에 계시면서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고 승리로 령도하신 불멸의 사적이 깃들여있는 사적관이다. **140원우표: 만경대교향집** 만경대교향집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탄생하시어 어린 시절을 보내신 교향집이다. 이번에 발행된 우표들의 크기는 52x34mm이다. **본사기자 김춘경**



단편소설: 녀교수의 증언 (6)

글 김호성, 그림 김철민

4

며칠전 김일순은 지금껏 살아오면서 느껴보지 못했던 동생에 대한 환멸감을 느끼게 맞았다. 것처럼 간절하게 부락한 김영준이라는 사람의 행적을 찾아줄 대신 약삭바른 대답뿐이었다. 질질 늘어서 물리나갔게 하자 는 속심이 분명했다. 이거야말로 버릇없는 하찮은 반질반질 주인 쳐다보는 꼴이 아니고 뭐가? 《네가 누이를 이쯤 매리고 놀았어 이젠 내 차려졌지?》 성미가 독한 김일순은 야멸찬 말을 골라서 물었다. 급해난 일진은 예뻐졌다. 《너무 심내지 말아요. 남 북대화의 전망도 없어요. 누이가 희망을 가지는 금강산에서 《리산가족》 상봉도 더이상 마련되지 않을거

야야 한다.》 느니 하는 소리로 반죽한 반공화국대결선전이었다. 우익보수계약단 꾸러기의 말공부질인데 글 줄마다 살기가 번쩍인다. 필자라는 사람은 제편의 수자와 사실을 렬거하면서 북의 《붕괴》는 시간문제이므로 고립과 제재의 도수를 높여야 한다는것, 그러자면 일미 동맹을 보다 강화하는것이 필요하다고 렬설했다. 우물 안의 개구리가 제법 세계정치의 구도를 바꾸기라도 할 듯 요란스럽게 울어대니 가 소로운 일이다. 북의 실상을 보지도 못한 주제에 《반공》광증에만 열을 올리다니 니 정신이 나갔는지 현 《정부》에 대해서까지 《어정쩡한 《청와대》는 정치바보노릇을 더이상 하지 말라.》고 제법 사대질이다. 《한국》이라는 경우에 이같이 서식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

가. 케번이라는 직업으로 발 동향해먹으면서 불법무도한 행위를 서슴지 않으니 남보 기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뭐란 말인가. 보기조차 싫은 책을 집어 내던진 김일순은 화집에 벌떡 일어섰다. 그때 문두드리는 소리도 없이 일진이 들어왔다. 이젠 또 무슨 팔불출인가. 꼭 어리광대같은 차림이다. 격자무늬의 양복저고리 앞섶은 헤쳐졌고 목에 매달린 검은색 넥타이가 어깨쪽에 올라가 매달렸다. 거기다 연청색진바지까지 입어놔서 길거리를 방종같은데 머리에 썼던 중절모를 벗어 앞가슴에 가져다대며 정중하게 허리부러진 인사를 한다. 《누님, 안녕하셨어요? ... 이 못난 동생 인사를 드립 니다.》 양복주머니에 두손을 찌른 김일순은 놀랐고 억이 막혀 마주보기만 할뿐 할 말을 찾지 못했다. 술을 마시더니? 40개계를 넘어서도록 술냄새를 퍼취해보지 못한 동생이었다. 그것이

일화: 스승을 도와준 룰곡

리조시기 유명한 유학자였던 룰곡에게는 장기를 좋아하는 스승이 있었다. 그런데 그는 이웃사람과 내기를 하여 쌀을 다 떼우고 몇 해째 농사도 짓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룰곡은 스승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룰곡은 스승이 그 사람과 장기를 두도록 하고 자기

자기는 구경하기로 하였다. 약속대로 룰곡은 그 집을 찾아가 주인과 스승사이에 벌여지는 장기를 한판만 구경하고 돌아왔다. 다음날 룰곡은 혼자 그 집 주인을 찾아갔다. 룰곡은 집 주인에게 그가 스승에게서 떠들인 발문서를 걸고 장기를 두자고 청하였다. 장기가 높은 집주인은 다가가

《너 지금 제정신이나?》 다급한 일순은 어쩔수없이 뒤걸음치며 동생의 만용을 저지시키려고 소리질렀다. 《나가라! 여기가 어디줄 알고? 신성한 과학연구장소다. 술집으로 알고 찾아왔다면 썩 나가!》 《신성하구말구요. 누님은 그 과학이 신성한지 몰라도 인간 김일순은 결코 신성할 수 없어요. 그래요!》 《네가 이제 감히 나를 모욕해? 아!...》 《보세요! 누님이 간절히 부탁했고 알고싶었던 진실이 여기에 있어요.》 《듣기 싫다! 주정병이한테서 진실은 무슨 진실?》 일진은 말없이 품에서 종이 한장을 꺼내며 책상위에 놓고 그것을 손가락으로 찍었다. 《보세요! 누님이 간절히 부탁했고 알고싶었던 진실이 여기에 있어요.》 《듣기 싫다! 주정병이한테서 진실은 무슨 진실?》 일진은 말없이 품에서 종이 한장을 꺼내며 책상위에 놓고 그것을 손가락으로 찍었다. 《보세요! 누님이 간절히 부탁했고 알고싶었던 진실이 여기에 있어요.》 《듣기 싫다! 주정병이한테서 진실은 무슨 진실?》 일진은 말없이 품에서 종이 한장을 꺼내며 책상위에 놓고 그것을 손가락으로 찍었다.

